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개최

-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논의
- 이정식 본부장, 재발방지 대책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할 것 당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이정식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8.13.(화) 14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환경부·경찰청·소방청·재외동포청·경기도·화성시 등의 참석 하에 중수본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습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정식 중수본 본부장은 “그간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한 입국, 산재 보상, 긴급생계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장례, 보상 합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유가족 1대1 연계 「현장지원단」 운영하여 소통·지원(고용부·경기도·화성시, ~7.31.)
- ▲ 산재보상 신속 상담·지원으로 유족급여 23분 중 21분 지원(근로복지공단, 8.12.기준)
- ▲ 통합심리지원단의 심리상담 709건(186명) 지원(복지부·고용부·행안부 등, 8.12.기준.)
- ▲ 피해보상 등 관련 법률상담 42건 지원(법무부·화성시 등, 8.12.기준)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신속한 대피 지원,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8804) 김태연 (044-202-8950) 이지운 (044-202-8965)
		담당자	서기관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윤종호 (044-202-8811) 용윤서 (044-202-8951) 김철수 (044-202-8805) 윤주희 (044-202-8902) 이은상 (044-202-8852) 정치환 (044-202-8952) 신백우 (044-202-8969)



□ 회의 개요

- 일시: 8.13.(화), 14:00~15:00
- 장소: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1907호)
- 주재: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
- 참석대상: 행정안전부, 법무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경기도, 화성시

□ 회의 내용

- (보고안전)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수습 현황 발표
- (논의안전)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및 논의

□ 세부 일정**※ 모두 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 모두 말씀	▶ 고용노동부 장관
14:05 ~ 14:25	▶ ①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수습 현황	▶ 발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14:25 ~ 14:55	▶ ②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및 논의	
14:55 ~ 15:00	▶ 마무리 말씀	▶ 고용노동부 장관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붙임2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이정식입니다.
- 다시 한번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고 수습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사고수습본부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51일 간 중수본은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유가족의 입국 절차부터 숙식 등 생활편의,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유가족과 1대 1로 연계한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원해왔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면서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전 유가족 상담을 마치고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21분의 유가족께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2분 유가족에 대한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가능한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였습니다.
- 전지업체 526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긴급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150여 개의 전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기획점검을 통해 철저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 경보·대피설비, 소화설비 구입 지원을 위한 자금 50억원 투입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포스터도 배포한 바 있습니다.
- 여기 계신 모든 관계기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있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다수 관계자를 소환하여 피의자로 신문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자,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 사고 이후 동종 업계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건물구조와 비상구 설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철저한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러한 현장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기업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금번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화재·폭발 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격벽 설치, 시각적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외국인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림자료,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들에게 더욱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제작·전달하겠습니다.

-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 ①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부처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오늘 논의를 통해 확정된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